

승차감·정속성 개선...“기아 대표 전기차 맞네”

●더뉴EV6 시승기

기아 오토랜드광주-화순 도곡면 46km 거리 왕복
강력한 토크 가속·서스펜션 변경 요철 대응력 ↑
주행 가능거리 494km 확보...장거리 부담 줄여

기아 전기차 대표차종인 EV6가 기존 모델보다 상품성이 개선된 새로운 얼굴로 최근 출시됐다. 종전 모델도 전기차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번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도 남달랐다.

지난 10일 열린 시승행사는 기아 오토랜드광주 정문에서 화순 도곡면 일원으로 편도 23km, 왕복 46km에 거쳐 이뤄졌다. 시승시간은 편도 40분, 왕복 80분이 소요됐다.

이번 시승 모델은 EV6 전기차 5인승 롱레인지 어스 2WD A/T 기본형으로 선루프, 메리디안 사운드, 빌트인캠2, 스마트키, 20인치 휠 등이 장착됐다.

차량의 시동을 걸고 악셀을 부드럽게 밟자, EV6는 내연기관에서 볼 수 없는 강력한 토크의 힘으로 초반 가속력을 자랑했다. 높은 속도를 내도 전기차 특유의 정속성 때문에 차 안은 조용했고

승차감은 부드러웠다. 타이트한 하체 세팅에 요철 대응력도 좋아져 내부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NCM(니켈 코발트 망간)배터리를 장착하면서 주행 가능거리를 494km까지 확보해 장거리 주행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었다.

또한 급속 충전 속도를 높여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음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300kW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10%→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주행 질감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과 승차감 등 주행 성능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서스펜션 변경으로 주행노감이 달라진 게 돋보였다. 부품 전부가 업그레이드 승차감 뿐만 아니라 운전 감각까지 개선됐다.



종전 모델보다 상품성을 개선한 외관 디자인은 브랜드의 최신 패밀리 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새롭게 자리했다. 후드의 캐릭터 라인을 차량 하단까지 연결, 날개 형상의 범퍼 디자인을

지난 10일 기아 오토랜드광주 정문에서 화순 도곡면 일원에 걸쳐 더뉴EV6를 시승했다. 사진은 더뉴EV6 내외부 모습. <기아 제공>

적용해 기존과는 다른 캐릭터를 형성했다.

실내는 전체적 레이아웃을 그대로 두고 디테일을 보강했다. 스티어링 휠은 기본 4 스포크, GT 라인 3 스포크로 이원화돼 트림별 차별성을 높이고 엠블럼이 후측으로 배치된 디자인을 통해 트렌디한 느낌을 부여했다.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 ▲라이트 5천540만원 ▲에어 5천824만원 ▲어스 6천252만원 ▲GT-라인 6천315만원이다. (*2WD 기준)

EV6는 주요 정부 부처 인증이 완료된 후 출시됐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라이트 5천260만원 ▲에어 5천530만원 ▲어스 5천986만원 ▲GT-라인 5천99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EV6는 외장 색상으로 신규 색상인 ▲아이보리 매트 실버를 비롯해, ▲스노우 화이트 펄 ▲인터스텔라 그레이 ▲오로라 블랙 펄 ▲글래시어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오트 블루 ▲런웨이 레드 등 총 8종의 색상을 운영한다.

EV6GT-라인 모델은 신규 색상인 ▲울프 그레이 ▲오트 매트 블루에 더해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 펄 ▲런웨이 레드 등 총 5종의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EV6는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아의 대표 전기차”라며 “더뉴EV6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기아가 전통과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기아 ‘The 2025 셀토스’ 출시...1열 열선시트 기본 탑재

기아는 국내 대표 소형 SUV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인 ‘The 2025 셀토스’를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사진>

The 2025 셀토스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화하고 상위 트림에만 있던 고급 사양을 중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The 2025 셀토스에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1열 열선 시트 ▲실내 소화기를 전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해 상품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장착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벨트라인에 크롬 몰딩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그니처 트림부터 동승석 파워 시트를 추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The 2025 셀토스는 신규 내장 컬러를 추가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블랙 가죽 시트를, 그래비티 트림에는 미드나잇 그린 가죽 시트를 추가했다.

The 2025 셀토스의 판매 가격은 1.6가솔린 터보 모델 ▲트렌디 2천246만원 ▲프레스티지 2천562만원 ▲시그니처 2천700만원 ▲그래비티 2천700만원이고, 2.0가솔린 모델 ▲트렌디 2천147만원 ▲

프레스티지 2천463만원 ▲시그니처 2천611만원 ▲그래비티 2천691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5 셀토스는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만 추가할 수 있었던 고급 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하고 내장 디자인 컬러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셀토스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제네시스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 참가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고성능 영역으로 확장 의지 강조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고성능 영역으로의 확장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영국 웨스트서식스주에서 열린 세계적인 자동차 축제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Goodwood Festival of Speed, 이하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GV60 마그마 콘셉트’ 등의 고성능 주행 능력을 시연해 보였다.

◇고성능 주행능력 선배 1993년부터 시작된 굿우드 페스티벌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카부터 고성능 스포츠카, 럭셔리 등 다양한 차량들을 전시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국 최대의 자동차 축제다. 차량이 실제 주행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어 ‘움직이는 모터쇼’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특히, 주행하기 까다로운 코너와 가파른 언덕으로 구성된 1.86km 길이의 ‘힐클라임(Hillclimb)’ 코스 주행이 행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제네시스는 이날 ‘GV60 마그마 콘셉트’,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 ‘GV80 쿠페 콘셉트’, ‘G70 트랙 택시 노르드 슬레이페’의 총 4개 차량으로 힐클라임 코스를 완주했다.

이번 콘셉트 차량들의 힐클라임 완주는 향후 양산될 제네시스의 고성능 차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2025년 ‘GV60 마그마’ 국내 출시 제네시스는 이번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고성능 차량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네시스는 고성능 차량 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여유’와 ‘자신감’에서 오는 ‘운전의 즐거움’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운전의 즐거움을 구현하기 위한 ‘제네시스 마그마’의 3대 속성을 공개했다.

제네시스 마그마의 3대 속성은 ▲충분한 파워와 정교한 차량 역학 제어로 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차량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행 감각 ▲넓고 낮은 차체로 역동성의 본질을 보여주고 제네시스만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디자인 ▲운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및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다.

제네시스는 오는 2025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GV60 마그마’를 본격 양산하고, 향후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